

<內經>

西漢^{AD 24} 東漢 魏晉 南北朝 隋 唐 宋 金 元 明 清

內經	全元起 (梁) <內經訓解>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王冰 <黃帝內經素問 注釋本> (운기7편증보) (陰陽互根사상과 益火之源以消陰翳 壯水之主以制陽光)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張介賓 <類經>	吳崑 <素問吳注>	汪昂 <素問靈樞類纂約注>
----	-------------------	-----------------	---	------------------	-------------	--------------	------------------

* 歷代 內經에 대한 研究

1. 현존체계의 완성

- (1) 素問: 王冰의 <黃帝內經素問 注釋本>
- (2) 靈樞: 宋代 史崧이 개편

馬蒔 <素問註證發微> <靈樞註證發微>	張志聰 <素問集註> <靈樞集註>
----------------------------	-------------------------

2. 歷代 內經 주석의 연구

- (1) 전면적인 주석과 교정: 唐 王冰 <黃帝內經注釋本>
 明 吳崑 <素問吳注> 明 馬蒔 <素問註證發微>
 清 張志聰 <素問集註><靈樞集註> 清 高世栻 <黃帝素問直解><黃帝靈樞直解>

李中梓 (明~清) <內經知要>	高世栻 <素問直解> <靈樞直解>
---------------------	-------------------------

- (2) 내경을 분류하여 새로이 편찬: 隋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明 張介賓 <類經>

- (3) 주요한 주제에 따라 주: 金 劉完素 <素問玄機原病式>
 明 李中梓 <內經知要>
 清 汪昂 <素問靈樞類纂約注>

<針灸>

西漢^{AD 24}東漢

魏晉 南北朝 隋

唐

宋

金 元

明

清

馬王堆 帛書 (BC 168년경)
(脈法, 陰陽脈死候, 却穀食氣
五十二病方,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등 의학관련자료)

皇甫謐 (晉)
<針灸甲乙經>
(현존하는 최초의
침구학 서적)
(349穴)

甄權
~明堂圖 수정

孫思邈
<千金方>

(격물구에 대한 이론,
경외기혈보충,
아시혈 개념정립)

王維一 (北宋)
<銅人俞穴鍼灸圖經>
(동인 2구 주조)
(354穴)

王執中 (南宋)
<鍼灸資生經>
(同身寸 취혈의 표준확립)
(압통점, 체위중시)
(宋이전의灸法 總結)
(360穴)

(宋元間에 子午流注鍼法 출현)
河若愚 (金)
<流注指微賦>
(子午流注鍼法)

王國端 (王開)
<扁鵲神應鍼灸玉龍經>
(飛騰八法-팔맥교회혈을
구궁팔괘의 숫자와 배합하여,
일시의 干支에 따라 치료혈선정)

竇默 (金~元)
(竇傑, 竇漢卿, 竇子聲)
<鍼經指南>
(標幽賦, 通玄指要賦 등
歌賦體만들)

(8법과 鍼刺14법을
정착시켜나감. P223)

竇材
<扁鵲心書>
(脾胃를 溫補하는灸法강조)

滑壽 (元)
(滑伯仁)

<十四經發揮>
(임독맥은 統腹背하고 그
그 고유의 혈을 가지고 있어
기타 기경과 다르니 12경과
같이 논하여 14正經이라 함)

高武
<鍼灸節要>
<鍼灸聚英>

楊繼洲
<鍼灸大成>
(359穴)

徐鳳
<鍼灸大全>
(鍼灸歌賦를 집대성)

汪機
<鍼灸問對>

李時珍
<寄經八脈考>

雷豐
<灸法秘傳>

廖潤鴻
<勉學堂 鍼灸集成>
(吳謙의 醫宗金鑑
361穴이 나옴)

姚蘭
<本草分經>
(분경에 따른 용약)

內經 1.素問
2.靈樞(針經)

葛洪
<肘後備急方>
(隔物灸에 대한 기록)

難經 (東漢)
(기경팔맥의 종류와 작용에 대한
기술, 오수혈, 배수혈, 복모혈,
原穴의 활용 설명)
(八會穴 제시)

* 한국 침구 의학사

<백제신집방>, <신라법사방>(침구관련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다.) (신라때 침구서 수입) (박사 2명을 둠)
<鍼灸擇日編> 세종 29년, 1447년 김순의, 김의손이 합작; 침구전문서 처음출현
<鍼灸要訣> 柳成龍 (이천의 의학입문에서 정리)
<東醫寶鑑> (마지막 부분에 '침구편'을 따로 둠. '銅人經'에서 인용)
<鍼灸經驗方> 許任 (조선시대 대표적 침구서)
<사암도인침구요결>
팔체질침법

*경혈을 경락에 따라 배열시켜 서술하는 체계의 완성 과정

楊上善<黃帝內經明堂類成>->王維一<銅人俞穴鍼灸圖經>->忽泰必烈<金蘭循經取穴圖解>->1341년 滑壽<十四經發揮>에서 완성
p11~18, 223

<本草>

西漢AD 24東漢

魏晉 南北朝

隋

唐

宋

金 元

明

清

神農本草經
p 13,176

陶弘景 (梁)
<神農本草經集注>
=神農本草經+名醫別錄>
(검은색과 붉은색글로 구분)

雷公
<炮炙論>(한약수치 전문서)

徐之才
<雷公藥對>or <藥對>
(10제설이 여기서 나왔다는 말이있다.
그러나 오번역. 송강에선 오번역이란
말이 없다.)

華타
(麻沸散)
(五禽之戲)
(中藏經은 후세인의 가탁)

新修本草 (蘇敬, 李勣)
=唐本草
(세계최초 국가발표 藥典)
(胡本草, 海藥本草)

陳藏器 <本草拾遺>
(十劑說)

李珣 <海藥本草>

孟詵 <食療本草>

<開寶本草>
(李昉)

<嘉祐補注本草>
(蘇頌, 林億)

<圖經本草>
(蘇頌)

唐慎微
<經史證類備急本草>

<大觀證類備急本草>
(嘉祐補注本草, 圖經本草,
醫方類書 를 참고해만들)
(經史證類備急本草라고도함)

曹孝忠
<政和本草>
(휘종의 명을 받아만들)
(대관본초를 교정하여만들)

寇宗奭
<本草衍義>
(고증과 논술에 중점을 둠)
(고증과 이치설명이 깊다.)
(약물을 변증함)

張潔古
<珍珠囊>
(성미, 음양, 승강부침,
귀경, 주치등 후세 본초학
토대가 됨)

王好古
<湯液本草>
(장결고, 이동원의
주장정리)

朱丹溪 (朱震亨)
<本草衍義拾遺>
(본초연의 보충)

朱橚 (주원장의 5째)
<救荒本草>
(엄청난양)
<普濟方>

劉文泰
<本草品匯精要>
(왕명을 받아만들,
역시 증류본초를 토대로)
(국가에서 편찬한 두번째본초)

陳嘉謨
<本草蒙筌>

王綸
<本草集要>
<醫論問答><明醫雜著>

繆希雍
<神農本草經疏>

劉若金
<本草述>

李時珍
<本草綱目>

1. 16세기이전 본초총괄
2. 금원시대 기미, 승강 음양, 귀경을 흡수
3. 과거이론에 대한 실제처험 수록
4. 새로운약물 수록
5. 강목체계 (문헌분류학적으로 엄청남)

汪昂
<本草備要>
(실용적으로 내용을 뽑아낸것)

吳儀洛
<本草從新>

趙學敏
<本草綱目拾遺>

黃宮繡
<本草綱目求真>

吳其濬
<植物名實圖考>

唐宗海
<本草問答>

한국 본초사

고구려- 본초의 전래
조선 초기 - 世宗大王 -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조선 중기 - 許浚 - 東醫寶鑑 (우리나라 본초학이 가장활기를 띤 시기, 선조)
조선 말기 - 方藥合編 - 藥性歌
100년전 -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그 용약법이 기성의학에 일대 혁명을 가져옴)

<책들> (방제서적등)

西漢^{AD 24} 東漢

內經
(최초의 방제학기초이론 제시)
(13首의 방제가 기재되어있음)

魏晉 南北朝

葛洪
<抱朴子> (內;연단,채약 外;유교윤리)
<玉函方>-> <肘後備急方>
(방대, 현재없음), (요약집, 돈없는 사람을 위해)

傷寒

(최초로 辨證論治한 경전)

隋

巢元方
<諸病源候論>
(최초의 병리전문서)

劉涓子

<鬼遺方>

(현존하는 최초의 외과 전문서)

徐之才

<藥對>

(약물분류법 '十種' 창조설, 그러나 오번역)

唐

孫思邈 (隋~唐)
<備急千金要方> <千金翼方>
(千金方이라 불림, 중국최초의
임상백과 사전)

王焘

<外臺秘要>

(종합성 의서)
(病을 논한후,方을 열거)

(국가사업, 由博返約이 특징적)

宋

(교정의서국)
太平聖惠方
(천금방,외대비요와 비슷한 방제수록 위주) (국가에서 쓴 첫 방서)
太平惠民和劑局方
(관약소의 약판매 지침서)(사물탕,사군자탕,소요산,지보단등수록)
聖濟總錄
(태평성혜방과 비슷, 오운육기)

(由博返約)
蘇軾
<蘇學士方>
蘇軾, 沈括
<蘇沈良方>
許叔微
<普濟本事方>
(송대 상한4총서중 하나) (상한백증가, 상한발미론)
嚴用和
<濟生方> (補腎論 주창)

*역대 의서적 중에서 최초의 방제학 서적은? <漢書藝文志>

陳言 (陳無擇)
<三因極一病證方論> (삼인치병설, p 15)
錢乙 <小兒藥證直訣>(최초 소아과전문서) <傷寒指要>
<내과학> 張銳 <鷄峯普濟方> (水腫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 치료)
董汲 <脚氣治法總要> <소아반진비급방>

金元

滑壽 <讀素問鈔>
<難經本義>
<診家樞要>
<十四經發揮>

危亦林 <世醫得效方>
(끝부분의 正骨방면은 한의학 正骨의 기초)

王履 (王安道) <醫經溯回集>
(내경, 난경, 상한론중 여러 문제에 대해 논술)

李中梓 <醫宗必讀>
<內經知要> <診家正眼>

明

朱橚 (주정왕, 주원장의 5째 아들) <普濟方> (엄청난 양)
<救荒本草> (역시 엄청난 양)

樓英 <醫學綱目>

虞搏 <醫學正傳>

李梴 <醫學入門>

孫一奎 <赤水玄珠>
<醫旨緒餘> <孫氏醫案>은 적수현주 권말에 수록된것

清

喻昌 <傷寒法律>
(cf 尚論篇-상한錯簡說 호응)

程國彭 <醫學心悟>
章楠 <醫門奉喝>
吳謙 <醫宗金鑑>

沈金鰲 <雜病源流犀燭>

王清任 <醫林改錯>
(治病全書가 아니라 해부를 통해 장부를 기록한것)
(장부에 모두 血있더라->活血逐瘀, 하권에 기허로 補陽還五湯 입방)

唐宗海 <血證論> (醫林改錯에 영향을 받은것)
<本草問答>

<내과학>

葛乾孫 (可久) <十藥神書>
(虛勞吐血을 치료하는 10종방제가실림)

李東垣 <脾胃論>

張子和 (張從正) <儒門事親>

<내과학>
종합적 저술

吳昆 <醫方考>
<素問吳注>

王綸 <明醫雜著> <本草集要> <醫論問答>
龔廷賢 <萬病回春>
正肯堂 <證治準繩> <類方·傷寒·女科·幼科·瘍醫>

은보파

薛己 (처음에는 瘍醫, 후에 내과의로 유명)
<內科摘要>
<外科發揮> <外科心法> <正體類要> <醫科經驗方> <保嬰撮要>

趙獻可 <醫貫>
(한량파에 반발하지만 六味, 八味로 병을 통치하려듬)

張介賓 <景岳全書> (新方八陣, 古方八陣)
<類經>

>>>

>>>

費伯雄 <醫方論>

汪昂 <醫方集解> --> <湯頭歌訣>
<素問靈樞類纂約注> <本草備要>

吳儀洛 <成方切用>
<本草從新>

보음파

徐大椿 (徐靈胎) <醫貫貶>
(북고파임-송대이후 비판)

陳念祖 (陳修園) <景岳新方貶>
(북고파)

<傷寒論>

西漢^{AD 24} 東漢 魏晉 南北朝 隋 唐 宋 金 元 明 清

傷寒雜病論
(勸求古訓 博采衆方)
p13

王叔和
<傷寒論>
<金匱要略>
p13, p125

주해 成無己 (宋->金)
(구문해석뿐 아니라 <注解傷寒論>
이론적으로 명백히) (전면적 주해를 단 최초의 책)

정리 許叔微
(원문을 새로 개편, <傷寒百證歌>
계통화) <傷寒發微論>
<普濟本事方 or 本事方>

보충 朱肱 <南陽活人書>
(상한론 몇증 후보충) (六經을 經絡으로 봄)
(온병에 관한보충)
(부인과 소아상한 보충)

龐安時 <傷寒總病論>
(四時溫病 주장,
溫病과 傷寒이 다르다함)

郭雍 <傷寒補亡論>
(五種 반진묘사)
(반진 온열병의 주요한 증상임)

董汲 <小兒斑疹備急方>

楊士瀛
<傷寒類證活人總括>
(氣者血之師 氣行即血行)

韓祗和 <傷寒微旨>

王履 (元->明)
<醫經溯回集>중에서
張仲景傷寒方法考

송의 명리학 영향으로.
복고사상이 심해짐
장중경을 의성으로 모심
유의등장

方有執
<傷寒論條辨>
(왕숙화 이후로
상한이 "錯簡"되었다.)

張遂辰
<張卿子傷寒論>

금궤

余彬 <금궤요략론주>
尤怡 <금궤요략심전>
吳謙 <의종금감> 중
<정정금궤요략주>

柯琴 <傷寒來蘇集>

상한논쟁
(상한이 실용적이라)
1. 착간 (착간 or not)
2. 정리
(태양병을 중심으로
or 탕증 or 8강 or 처방)
3. 六經의 해석
(육경이 경락인가 육기인가)

喻昌 (嘉言)
<尚論篇>
(착간설 열렬히 호응)
<醫門法律>

張志總
<傷寒論集注>
(착간이 아니라함)
(고세식이 마저완성한책)

尤怡 (在經)
<傷寒貫珠集>
(風傷衛 寒傷營 반대)
(정치, 괴병, 화겁, 실치
등으로 나누자고)

<傷寒論翼>
<傷寒論注>
<傷寒附翼>

<診療방면>

西漢^{AD 24}東漢

魏晉 南北朝

隋 唐

宋

金 元

明

清

王叔和

(傷寒雜病論을 정리) ==>

<傷寒論> <金匱要略>

<脈經>

(현존하는 가장오랜된 論脈全書)

(24종 맥상 기록)

(寸關尺 삼부맥위와

臟腑와의 관계 규정으로

獨取寸口脈診法の 임상적 응용을

촉진함)

高陽生

<脈訣>

(맥경을 가결로 만들)

崔嘉彦

<紫虛脈訣>

(28맥상 논술)

施發

<察病指南>

(여기서 33종 脈圖나옴)

(以圖視脈의 시도)

滑壽 (元)

<診家樞要>

<讀素問鈔><難經本義>

<十四經發揮>

杜本

<鰲氏傷寒金鏡錄>

(설상 36종, 설상전문서)

李時珍

<瀕湖脈學>

<本草綱目>

李中梓

<診家正眼>

<醫宗必讀><內經知要>

張介賓

<類經>

<景岳全書>중

十問篇

林之翰

<四診抉微>

張登

<傷寒舌鑑>

<婦産科>

西漢^{AD 24}東漢

魏晉 南北朝 隋

唐

宋

金 元

明

清

難經

(扁鵲은 帶下醫, 고대에는 帶'가 모든 부인병을 지칭

金匱要略(傷寒雜病論)
(최고의 부인과 서적)

孫思邈

<千金要方>에서

부인과, 소아과를 중시하여
부인과 질병을 首位에 취급

楊康侯(楊子建)(北宋)

<十産論>

1. 難産 및 助産방법소개
2. 轉胎手法은 의학사상
이상태위전위술에 대한 최초기록

王肯堂

<女科證治準繩>

武之望

<濟陰綱目>

朱端章(南宋)

<衛生家寶産科備要>

1. 남송이전 제가들의 산과경험을
모아놓은 산과전문서.

傅山(靑主)

<傳靑主女科>

張景岳(張介賓)

(婦人規)

陳自明(良甫)

<婦人大全良方>

1. 가장 대표적인 부인과 서적

cf) 최고의 부인과 서적- 金匱要略

최초의 부인과 전문서적- 經效産寶

한의학 최초의 산과 전문서- 産育寶慶方(작자미상)

가장 대표적인 부인과 서적- 婦人大全良方

우리나라 최초의 산부인과 전문서- 胎産要錄

한국 부인과

cf) 세종 때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胎産要錄, 産書)

盧重禮(조선)

<胎産要錄>

1. 상권은 임신부의 위생에 대해
2. 하권은 유아 양육법에 대해
3. 우리나라 최초의 산부인과 전문서

작자미상

<産書>

허준

<東醫寶鑑> (胞門(부인과 질환위주), 婦人門(산과질환 위주))

허준의 부인과 의서

<諺解胎産集要> (醫學入門과 醫學正傳을 기본으로 저술)

<小兒科>

隋, 唐

<顯凶經>

(최초의 소아과 전문서,
저자 불명확)

宋

錢乙 (北宋)

<小兒藥證直訣 >

(오장 장부변증을 소아과
임상에서 가장 먼저 사용)

1. 소아과학의 창시자
2. 소아는 성인과 달리 오장육부는 成而未全하고
轉移未壯 하여 易虛, 易實, 易寒, 易熱 해지기
쉬운것이 특징.
3. 망진을 중시
4. 발진성 전염병, 천연두, 마진의 원인을
胎毒에 있다고 봄

劉昉 (南宋)

<幼幼新書>

(虎口三關指紋檢查法)

(송대이전의 소아과 관련 학술을 집대성
그당시 가장 완비된 소아과 전문서)

董汲

<小兒斑疹備急方>

(상한론을 소아에 관해서 보충한 송대 의가)

金 元

曾世榮

<活幼心書>

(審證施治에 독특한 견해)

金元四大家

각각의 이론에 맞게 소아를 설명

明, 清

萬全 (密齊) (明)

<萬密齋醫書十種> <幼科發揮>

<痘疹心法> <片玉痘疹>

(錢乙을 기초 + 丹溪의 학설에 영향받음...三有餘四不足)

薛鎧 (明)

<保嬰撮要>

陳復正 (清)

<幼幼集成>

葉天士 (清)

<幼科要略>

한국 소아과

趙廷俊 <及幼方>:

1. 우리나라 최초의 소아과 전문서
2. 醫學入門과 錢乙諸方 위주
3. 우리나라 기후 풍토를 중심으로 '東方六氣'를 논함

李獻吉 <麻疹秘方>

(麻疹書)

丁若鏞 <麻科會通>

(麻疹書)

<外科>

上古 周 漢 魏晉 南北朝 隋唐 宋 金 元 明 清

砭石은 癰瘍을 치료하는 도구
동방에 癰瘍이 많았다.

<劉涓子鬼遺方>

주나라 의정제도
食醫, 疾醫, 瘍醫, 獸醫

華佗 (後漢)
(麻沸散을 이용한 외과수술)
(외과 수술의 효시)

<太平聖惠方>의
內消, 托裏의 법
(整體觀과 辨證論治의
원칙을 외과에 적용)
(開刀方法에서 약물치료로 전환)

李迅 (南宋)
<集驗背疽方>
(發疽에 내외구별있음)

陳自明 (良甫)
<外科精要>
(외과의 개념을 명확히함)
(장부경락의 허실근거로
因證施置할 것을 강조)
<婦人大全良方>

齊德之 (元)
<外科精義>
(전신증상 중요시,
맥과 증을 결합한 변증론치
강조)

12세기 초
<衛濟寶書>
(최초의 암에 대해 기제)

13세기 중엽
<仁齋直指>
(역시 암에 대해 기제)

薛己 (薛立齋) (온보파)
<外科發揮><外科心法>
<正體類要><外科經驗方>
(후에 내과의로 유명해짐)
<內科摘要>

汪機
<外科理例>

王肯堂
<瘍醫證治準繩><外科啓玄>

陳實功
<外科正宗>

王維德
<外科證治全生集>

顧世澄
<瘍醫大典>

한국 외과 의학사

고려: 인종 15년 외과학이 과거고시로 채택

조선:

1. 외과학의 분야: 針灸醫, 癰癧醫, 治腫醫
2. 명종: 任彦國-> 治腫醫로 유명 <治腫指南>
3. 선조: 全有亨-> 해부학 개발
4. 현종: 白光炫-> 治腫敎授로 유명
5. 순조: 李宜春의 외과방 <瘍醫微>
6. 성종~중종: 金順蒙은 침과 약으로 종창환자 수천명을 치료함

cf) 內消: 內消하는 약물로 아직 초기에 화농되지 않은

종양을 소산시키는 것.

托裏: 중앙내탁법, 탁법이라고도 함.

보익기혈하는 약물을 위주로 하고, 활혈해독하는

약물을 보좌함으로써 정기를 돕고 독을 외부로

배출시켜 독사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cf) 正宗派 (補托法을 위주로하며 칼을 씀)

(<瘍醫大全>정종파의 서적. 외과서중 가장
완비된 서적중 하나)

全生派 (消導法을 위주로 칼사용을 신중)
(癰과 疽에 대한 구별)
(疽證에 소도법)

